

▶ 아동

통합독서치료가 시설청소년의 가족 개념 및 가족 이미지 개선, 미래가족형성자신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한 유 진*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노 남 숙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사)

시설 청소년은 원가족의 붕괴를 이미 경험하였으며 시설생활로 인해 건강한 가족을 보고 경험할 기회가 매우 부족하다. 가족환경의 이러한 결손은 시설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개념과 가족 이미지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결혼관이나 나아가 미래 자신이 형성할 가족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족'이라는 주제의 다양한 책 매체를 중심으로 이와 연관된 예술활동을 접목시킨 통합독서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설청소년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정서적 영역인 가족 이미지와 인지적 영역인 가족 개념을 개선하고 가치영역인 미래가족형성 자신감을 증진하도록 하였다. 연구방법은 E 보호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2~고2 청소년을 실험집단(12명), 통제집단(12명)으로 2006년 11월~12월까지 주 2회 총 12회기의 통합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 사전 사후 검사를 하였다. 질문지는 첫째, 가족 이미지 척도는 최명선(2005)의 의미분석척도를 수정보완. 둘째, 가족 개념 척도는 송명숙(2004), 윤진숙(2002)의 가족 개념 척도를 수정보완. 셋째, 황현주(2004)의 미래가족형성자신감, 결혼관, 이혼관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문장완성검사와 개별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독서치료를 실시한 후 실험집단 시설청소년의 가족 이미지와 가족 개념, 미래가족형성자신감,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즉 과거 부모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부정적 이미지가 구체적인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되었으며, 현재 인식하고 있는 가족 개념에 대한 세부영역인 가족의 정의, 가족의 기능, 가족원의 역할 부분과 미래가족형성자신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둘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설청소년들의 문장완성검사와 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에서 통합독서치료는 집단원들에게 자기표현의 증가 및 자신의 억눌린 감정 상태를 책을 매체로 한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여 정서적 긴장감을 풀어내고, 집단 내에서의 긍정적 교류경험과 가족 이미지, 가족 개념, 미래가족형성자신감에도 긍정적 영향이 보여졌다. 셋째, 프로그램은 4단계로 개발 구성하였는데, 1단계는 신뢰감 형성 및 책과 친해지기, 2단계는 과거의 복합적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정서 활성화 단계, 3단계는 현재의 가족에 대한 개념 확인 및 가족관련 사고의 변화 촉진 단계, 4단계는 미래의 가족 관련 자신감 형성 및 결혼관, 이혼관의 가치관 관련 긍정적 변화를 중심으로 하였다. 넷째, 통합적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가족 관련 주제의 국내외 다양한 책을 검토하여, 적합한 책을 선정하였고, 그림동화책, 시, 수필, 팟트집, 인터넷 애니메이션 동화 등 다양한 장르를 활용하였다. 또한 독서치료 활동을 미술, 음악, 연극활동 등의 예술활동으로 연결하고 확충하여 시설청소년의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는 것이 이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통합독서치료가 시설청소년이 지닌 부정적 가족 이미지 및 가족 개념을 개선하고 미래가족형성자신감을 증진시킨 이 논문의 결과를 통해, 가족의 해체로 인해 심리적 상처와 여러 위험요인을 안고 살아가는 시설청소년들에게 앞으로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근원적 원동력인 긍정적인 가족 이미지, 가족 개념, 미래가족형성자신감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개별 및 집단 독서치료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